

웨스트젯, 로키로 가는 가장 빠른 길

서울에서 단 한번에, 자연과 여유가 공존하는 알버타로.



Why Westjet – 도시를 연결하다

- 인천–캘거리 약 10시간 30분 직항
- 밴프·재스퍼·로키 여행의 완벽한 시작점
- 캘거리로 허브로 활용해 캐나다·미국 도시 간편 연결

Our Difference – 여행의 풀격을 높이다

- 웨스트젯은 단순한 이동이 아닌, 여행의 일부가 되는 항공사입니다.
- 최신 B787-9 드림라이너와 함께 조용한 캐abin, 부드러운 조명, 따뜻한 캐나다식 환대로 진정한 프리미엄 여행 경험을 완성합니다.

Gateway to Alberta – 로키로 향하는 첫걸음

- 웨스트젯 드림라이너에 탑승하는 순간, 알버타의 감성이 시작됩니다. 드넓은 하늘, 눈부신 로키산맥, 그리고 여유로운 자연의 정취를 기내에서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인천에서 캘거리까지의 10시간 30분은 단순한 비행이 아닌, 알버타로 향하는 특별한 여정의 시작입니다.

알버타, 로키 그 이상의 감동



CANADA'S ♡ ALBERTA | WESTJET × SRT[®]

알버타 스티커로 여행을
추억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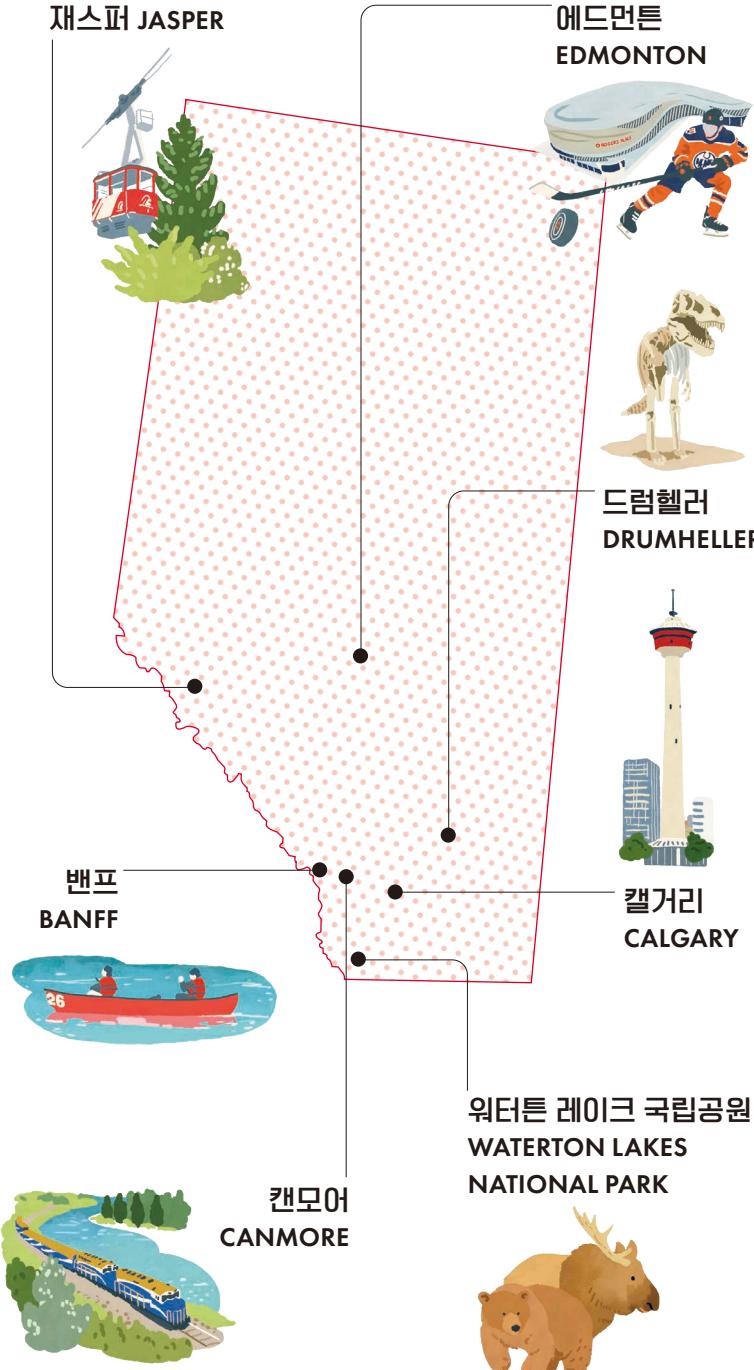
Stickers Included!

캐나다 알버타 여행도 통역이 되나요?

웅장한 로키산맥에서 끝없이 펼쳐지는 대초원까지, 알버타 주는 캐나다에서도 가장 극적인 자연 풍경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수천만 년의 시간이 켜켜이 쌓인 지형은 여행자들에게 놀라움과 영감을 선사하며, 이곳의 도시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독특한 개성과 힐력을 더한다. 밴프와 재스퍼 국립공원이 품은 순수한 자연, 캘거리와 에드먼튼이 전해주는 현대적 감성, 그리고 워터튼 호수와 드럼헬러가 보여주는 다양한 유산은 알버타 주가 가진 매력의 일부에 불과하다. 계절에 따라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는 것도 이곳만의 특별함이다.

Contents

- 03 알버타 기본 정보
- 04 캘거리
- 08 밴프
- 12 재스퍼
- 14 에드먼튼
- 16 캐네디언 배드랜즈
- 18 알버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6곳
- 20 로키는 기차를 타고
- 22 알버타 주 대표 호텔
- 24 알버타 미식 여행
- 26 알버타 여행 팁
- 27 웨스트젯 소개



꼭 알아두기!

알버타 기본 정보

국가 번호

캐나다 국가 번호는 +1이다.
대표 지역번호는 알버타
남부 403, 알버타 북부 780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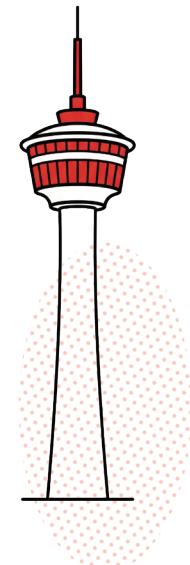


5%

세금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주세가 부과되지 않는 알버타 주는 소비자 세금 부담이 5%로 가장 낮아 쇼핑하기 최적의 지역이다.

주요 도시
캐나다의 수도는
오타와(Ottawa), 알버타의
주도는 에드먼튼(Edmonton),
알버타에서 가장 큰 도시는
캘거리(Calgary)이다.



시차

캐나다는 총 6개의 시간대로 나뉘어 있으며,
알버타 주가 속한 서부 산악 표준시(MST)는
한국보다 16시간이 느린다. 다만, 매년 3월
둘째 일요일부터 11월 첫째 일요일까지는
서머타임(Daylight Saving Time)을
적용하여 시차가 15시간으로 줄어든다.



16 시간

기후

알버타 주가 속한
서부 로키 산악지대는
여름엔 건조하고
저녁에는 선선한 편이다.
여름에는 낮이 길어
여행하기 좋다. 가을부터
기온이 떨어지고 눈이
많이 오기도하는데,
겨울엔 영하 40°C까지
내려가기도 하지만
건조하고 바람이 적어
체감 온도는 이보다는
높은 편이다.



공휴일

- 알버타 주는 연중 9일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으며,
이외에 4일의 선택적 공휴일도 있다.
- **양력 설 또는 신정 (New Year's Day)** 1월 1일
 - **가족의 날 (Alberta Family Day)** 2월 셋째 월요일
 - **성 금요일 (Good Friday)** 부활절 전 금요일
 - **빅토리아의 날 (Victoria Day)** 5월 25일 전 월요일
 - **캐나다의 날 (Canada Day)** 7월 1일 (국간 기념일)
 - **노동절 (Labour Day)** 9월 첫째 월요일
 - **추수 감사절 (Thanksgiving Day)** 10월 둘째 월요일
 - **종전 기념일 (Remembrance Day)** 11월 11일
 - **크리스마스 (Christmas)** 12월 25일

캘거리는 해발 고도가 1,048m로 상당히 높은 곳에 세워진 고원 도시인데, 스카이라인을 이루는 도시 중심의 빌딩숲을 보면 고원이라는 사실이 전혀 실감나지 않는다. 도시에서 불과 한두 시간 정도 나가면 대자연을 마주할 수 있으며, 로키산맥의 관문으로도 불린다. 진취적이면서도 여유로운 캘거리 사람들의 성격은 자연과 도시의 이 대비감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싶다.

캘거리 타워 Calgary Tow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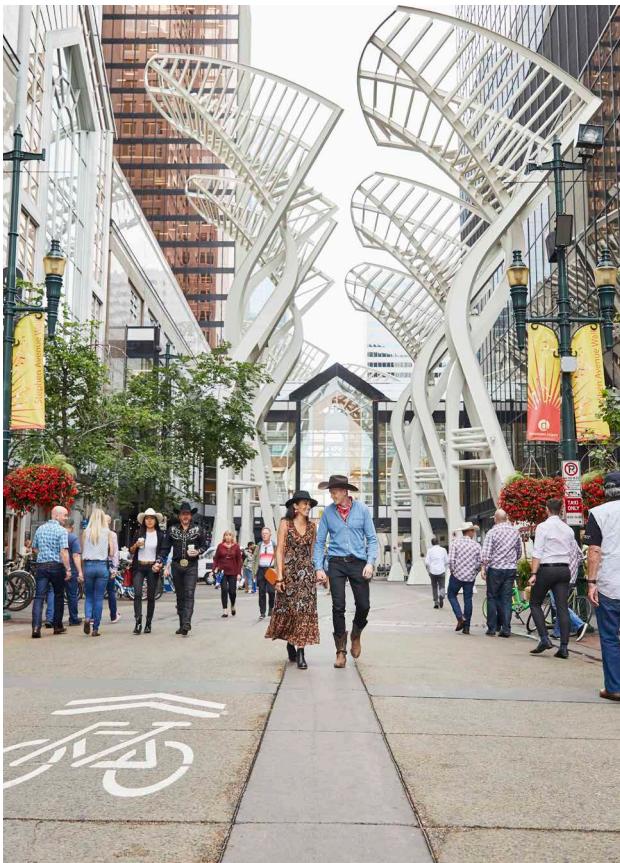
도시 여행의 시작점으로 캘거리 타워를 권하고 싶다. 1968년 완공된 이곳은 캘거리의 대표적인 랜드마크다. 전체 높이는 191m에 이르고, 시내를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는 150m 높이에 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까지 도착하는 시간은 단 62초. 360도 돌아가는 전망대에 서면 다운타운의 빌딩 숲과 남쪽의 스템피드 공원(Stampede Park), 서쪽 멀리 로키산맥까지 보인다. 밤에는 LED 조명으로 멋진 빛을 발하므로, 멀리서 캘거리 타워를 천천히 감상해보는 것도 좋겠다. ☎ 101 9 Ave SW, Calgary, AB T2P 1J9
🕒 12:00~21:00(월~금요일), 10:00~21:00(토·일요일)



스카이360 Sky360

전망대 아래층에 자리한 회전식 레스토랑이다. 천천히 회전하는 구조로 캘거리의 전경을 창밖으로 바라보며 식사를 즐길 수 있다. 브런치, 런치, 디너를 운영하며, 식사류 및 디저트, 와인과 칵테일 등 다양한 메뉴를 갖췄다.

🕒 브런치 10:00~14:00(토·일요일), 런치 11:30~14:30(월~금요일), 디너 17:00~23:00(일~목요일, 마지막 예약 21:00), 디너 17:00~24:00(금·토요일, 마지막 예약 10:00)
✉ www.sky360.ca ☎ sky360calgary



스티븐 애비뉴 Stephen Avenue

다운타운의 분위기를 만끽하고 싶다면 단연 이곳으로. 보행자 전용 도로가 조성된 번화가로, 높은 빌딩들이 둘러싼 가운데 고풍스러운 19세기 건물들이 모여 있는 점이 특히 이색적이다. 오래된 건물들이 자리한 풍경을 지키기 위해 2002년에 국립 역사 지구로 지정되었다. 대형 쇼핑센터는 물론 레스토랑, 카페가 밀집해 쇼핑과 여가 시간을 보내기에 좋다. 평일 점심시간이면 근처 빌딩에서 몰려나온 직장인들로 더욱 활기가 넘친다. 여행할 때는 그곳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꽤 흥미로운 일이다. 현지인들 속에서 평일 한낮의 번화가를 한번 누려보기를.

📍 340 8 Ave SW, Calgary, AB T2P 1C1



크레센트 하이츠 (Crescent Heights) 보우 강과 캘거리 도심 스카이라인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최고의 명소 중 하나

📍 240 Crescent 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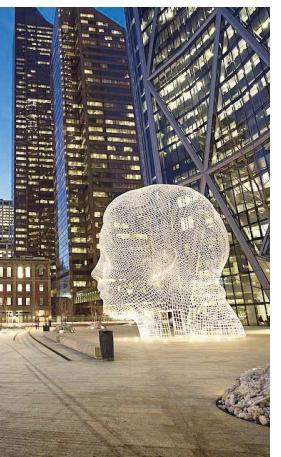
씨트레인 C-Train

블루와 레드, 총 2개 노선으로 지상 레일을 달리는 경전철이다. 다운타운을 동서 방향으로 지나가는데, 다운타운 내 무료 운행 구간이 있어 한 번 타보는 것도 부담 없겠다. 개찰구는 없다. 티켓은 정류장 앞 발매기에서 구입할 수 있다. 무료 구간은 시티 홀(City Hall)부터 다운타운 웨스트/카비(Downtown West/Kerby)까지.

원더랜드 Wonderl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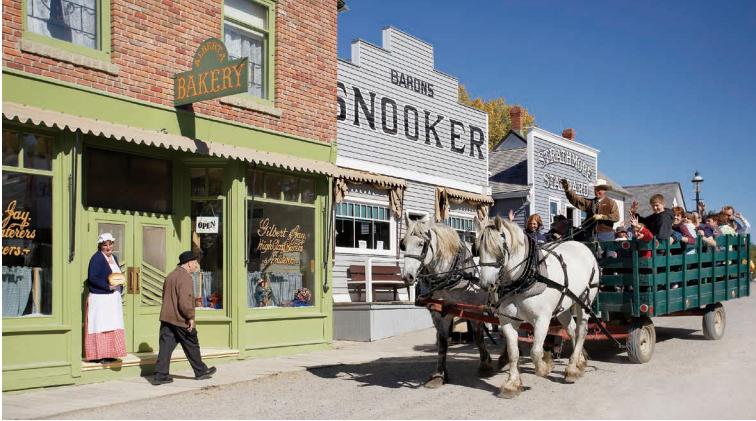
더 보우(The Bow)라는 유명한 빌딩 앞에 자리한 더 유명한 조형물이다. 흰색의 와이어로 소녀의 두상 모형을 만든 이 거대한 작품의 높이는 12m, 작품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있어 안에서 밖을 볼 수도 있다. 카탈루나 출신의 세계적인 조각가 자우메 플렌자의 작품이다.

📍 500 Centre St S, Calgary, AB T2G 0E3



헤리티지 파크 Heritage Park

186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캐나다 서부의 역사를 재현한 곳으로, 각 시대에 따라 네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있다. 1864년경의 허드슨 베이 컴퍼니 모피 교역 요새, 1880년대의 철도 건설 이전의 정착촌, 1910년경의 철도 개척 도시, 192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의 모습을 재현한 헤리티지 플라자다. 여러 시기의 레트로 무드로 사진을 촬영하기 좋은 덕에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증기기관 열차를 타고 빌리지를 둘러볼 수 있다. 1900 Heritage Dr SW, Calgary, AB T2V 2X3 매일 10:00 AM – 5:00 PM (정확한 일정은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평화의 다리 Peace Bridge**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에서 10분 정도 걸으면 바로 보이는 이 다리는 스페인의 유명한 건축가 산티아고 칼라트라바의 작품으로, 130.6m의 다리가 강 위에서 교각 하나 없이 이어진다. 2012년 보행자 전용 다리로 완공돼 캘거리의 랜드마크가 됐다. 유리 지붕 덕분에 보행자는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다. 특히 조명이 켜지는 밤에는 다리의 도회적 아름다움이 더욱 눈길을 사로잡는다. 8003 St SE, Calgary, AB T2P 0E5

**캘거리 공공도서관 중앙지점
Calgary Public Library - Central**

우뚝 선 멋진 건축물 앞에 평일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서 입장장을 기다리는 진풍경이 펼쳐지는 이곳은 다른 도서관이다. 내부에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이 마련되어 있고, 캘거리의 문화 의식을 염볼 수 있어 아이들과 함께 찾기에도 좋은 공간이다. 누구나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여권지침 후 방문하면 도서관 카드를 발급하여 도서 대여도 가능하다.

8003 St SE, Calgary, AB T2G 2E7

**프린스 아일랜드 공원 Prince's Island Park**

다운타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휴식처가 되어주는 이곳은 다운타운의 북쪽으로 흐르는 보우 강(Bow River)에 자리한 섬 안에 조성된 공원이다. 다운타운과 섬을 연결하는 보행자 다리를 통해 공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 산책로를 따라 푸른 계절의 녹음과 천천히 흐르는 보우 강, 멀리 보이는 다운타운 내 높은 빌딩을 바라보며 한나절을 보낼 수 있다. 공원 안에는 리버 카페(River Café)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공원에 다소곳이 자리한 식당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메뉴를 내놓는다. 기회가 된다면 브런치를 즐겨보자. 25 Prince's Island, Calgary, AB T2P 0R1 5:00~23:00 리버 카페 11:00~21:00(금요일), 10:00~21:00(토요일), 10:00~20:45(월요일), 10:00~20:45(화~목요일)

캐나다 최고의 여행지라고 불리는 로키를 여행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다. 밴프 국립공원은 그중 대표적인 여행지로, 1885년 캐나다 최초로 지정된 국립공원이다. 밴프는 우리가 캐나다 하면 떠올리는 아름답고 상징적인 풍경들을 잘 간직하고 있으며, 이런 풍경들이 여행자에게 차원이 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밴프 애비뉴 Banff Avenue

만년설로 하얗게 뒤덮인 웅장한 산 사이에 자리한 아늑한 마을, 밴프 타운의 변화가다. 거리 양쪽을 따라 늘어선 상점에서는 지역색이 듬뿍 담긴 기념품을 사기에 좋고, 일버타 주의 명물인 소고기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도 눈여겨보길 바란다. 만년설이 보이는 산맥이 저 멀리 보여도 여름에는 화사한 꽃과 나무들이 신책하는 거리를 싱그럽게 채운다.



밴프 정보 센터

Banff Information Centre

밴프 여행의 출발점으로 삼으면 좋다. 밴프 국립공원 여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특히 하이킹을 계획한다면 이곳에서 자세한 정보를 얻어볼 것. 밴프 기차역에서 도보 8분.

📍 224 Banff Ave, Banff ☎ 09:00~17:00



밴프를 기억할 쇼핑 아이템 찾기

캐스케이드 숍 Cascade Shop 밴프 애비뉴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로 불거리가 기득한 여러 가게와 푸드코트가 있어 쇼핑과 식사를 즐기기에 좋다. 3층 규모의 건물 외관도 이색적이다. 📍 317 Banff Ave, Banff, AB T1L 1C1 ☎ 10:00~20:00(월~목요일), 10:00~21:00(금·토), 10:00~18:00(일요일)

쿨 애즈 어 무스 Cool As a Moose 귀여운 무스 캐릭터를 중심으로 소소한 기념품과 티셔츠, 모자, 후드티 등 의류를 판매한다. 로키에는 특히 많은 무스가 살고 있다.

📍 115 Banff Ave, Banff, AB T1L 1A7 ☎ 9:00~22:00

로키 마운틴 소프 컴퍼니 Rocky Mountain Soap Company 캐나다(Canmore)라는 마을에서 시작한 작은 비누가게로, 전 지역에 지점을 둔 회사로 성장했다. 천연 성분으로만 만든 다양한 스킨케어 제품들을 판매하며, 선물용으로 인기다. 📍 204 Banff Ave, Banff, AB T1L 1C1 ☎ 10:00~21:00



캐스케이드 오브 타임 정원 Cascade of Time Garden

이곳 이름에 '캐스케이드'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약 5km 멀리 위치한 높이 2,998m의 캐스케이드산의 절경을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는 정원이라서다. 그래서 건물을 등지고 잔디에 앉아 산과 거리를 기분 좋게 바라보는 여행자들을 쉽게 만나볼 수 있다. 이런 절묘한 풍경의 조합을 또 어디서 볼 수 있을까? 여행 중 잠시 쉬어가는 공간으로도 좋다. 📍 Cave Ave, Banff, AB T1L 1K2 ☎ 08:00~23:00



밴프 곤돌라 Banff Gondola

로키의 절경과 밴프 타운을 감상하는 최고의 방법으로 통한다. 설파산(Mt. Sulphur) 중턱에 자리한 승강장에서 곤돌라를 탑승해 8분 동안 698m를 가서 2,281m 높이의 전망대까지 올라간다. 전망대에서는 밴프 타운과 런들산(Mt. Rundle), 저 멀리 미네완카 호수까지 조망할 수 있다. 올라가는 곤돌라 안에서 보는 풍경도 당연히 장관이다. 성수기인 여름철에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리면 많이 기다릴 수도 있으니, 가장 시간보다 일찍 가거나, 가장 시간을 피해 늦게 방문하는 것도 방법이다. 홈페이지를 통해 티켓을 예약할 수 있으며, 날짜에 따라 요금이 상이하다. 📍 100 Mountain Ave, Banff, AB T1L 1B2



존스턴 캐년

Johnston Canyon

보우 밸리 파크웨이를 따라 밴프 타운에서 서쪽으로 약 25km 떨어진 이곳은 드라마틱한 협곡 경관과 폭포를 자랑하는 인기 하이킹 코스이며, 잉크 팟(ink Pots)까지 연장하여 트레킹 할 수 있다. 존스턴 크리(Johnston Creek)의 수량은 계절별 눈 녹은 물과 강우량에 따라 달라진다.

밴프 어퍼 핫 스프링스

Banff Upper Hot Springs

1886년부터 이어져 온 밴프 국립공원의 전통적인 명소로, 런들산과 캐스케이드산 봉우리를 바라보며 100% 천연 광천수에 몸을 담그고 휴식을 취할 수 있다. 이곳은 연방 문화유산 건물에 자리하며, 방문객들에게 광물질 온천과 함께 밴프의 유구한 역사를 경험하게 한다.



레이크 루이스 Lake Louise

오로지 이 호수를 보기 위해 밴프 국립공원을 찾는 이들도 꽤 많다. 빅토리아산(Mt. Victoria) 아래 고요히 빛나고 있는 에메랄드빛깔의 호수는 세계적인 절경으로도 손꼽힌다. '레이크 루이스'는 호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호수를 중심으로 주변에 웅장한 호텔과 스키 리조트, 작은 마을을 포함한 지역 전체를 지칭한다. 호수를 배경으로 하이킹, 카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밴프에서는 차로 45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으며, 밴프의 대중교통인 룸(Roam) 버스, 투어버스, 셔틀버스를 이용해 갈 수 있다.  111 Lake Louise Dr, Lake Louise, AB T0L 1E0



애프터눈티 Afternoon Tea

캐나디안 퍼시픽 철도 호텔의 유서 깊은 전통이다. 에메랄드빛 호수가 내려다보이는 우아한 라운지에서 스콘과 샌드위치, 디저트를 맛보는 동시에, 창밖으로는 산봉우리와 빙하가 펼쳐지는 장엄한 풍경을 만끽하실 수 있다.



베이슨 글래셜 워터스 BASIN Glacial Waters

밴프 국립공원의 웅대한 자연 속,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즈 호텔 내에 자리한 프리미엄 스파 공간이다. 이곳은 엄선된 온열 코스(Thermal Circuit)와 인피니티 풀을 통해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로키산맥의 파노라마 경치를 배경으로, 독보적인 평온함과 럭셔리한 웰빙 경험을 선사한다.



여름에 즐기는 액티비티, 카누 Canoe

호수 왼편에 있는 아담한 통나무집이 카누 대여점이다. 카누를 타고 잔잔한 호수 위를 가닐며 빅토리아산의 산악 빙하를 마주하는 경험은 잊지 못할 친란한 순간이 될 것이다. 정적인 여행을 선호하는 이들이라도 어렵지 않게 해볼 수 있다.



아그네스 호수 티 하우스 Lake Agnes Tea House

아그네스 호수가 보이는 곳에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티 하우스가 있다. 간단한 음식과 차로 소박한 식사를 즐기면서 부담없이 쉬어가기에 좋다. 빅비하이브에서 바라보는 엄청난 절경을 쿨하게 포기한 이들이라면 이곳에서 호수와 산맥을 배경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아쉬운 마음은 전혀 들지 않을 것이다.

 Lake Agnes, Lake Louise, AB T0L 1E0



모레인 호수 Moraine Lake / 라치 뱈리 Larch Valley

밴프 국립공원에서 가장 사랑받는 명소인 모레인 호수는 '열봉우리 계곡'을 배경으로 눈부신 청록색 물빛을 자랑한다. 호숫가나 락파일(Rockpile)에서 상징적인 경치를 즐길 수 있으며, 모레인 호수 위쪽의 라치 뱈리(Larch Valley)까지 하이킹하면 로키산맥 고도에 펼쳐진 광활한 낙엽송 숲을 만날 수 있다. 트레일을 따라 수목 한계선에 다다라 장엄한 풍경을 만끽하는 것은 큰 보상이며, 그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다른 배낭여행객이나 텁풀산 등반가들과 미소를 나눌 수도 있다. 모레인 호수는 6월부터 10월까지만 개방된다.



더 비하이브 The Beehive

레이크 루이스 옆에는 별집을 닮아 비하이브로 불리는 독특한 모양의 산이 있는데, 이곳이 바로 '레이크 루이스 뷰 맷집'이다. 비하이브에 오르는 길은 레이크 루이즈 호수 옆 산길에서 시작한다. 이 길을 가다 보면 작은 미러 호수(Mirror Lake)가 보이고 계속 가면 아그네스 호수(Lake Agnes)가 등장한다. 산은 리틀비하이브와 빅비하이브로 나뉘는데, 아그네스 호수 안쪽으로 들어가 지그재그로 난 길을 올라가면 레이크 루이스의 탁 트인 전망을 내려다볼 수 있다.

재스퍼 국립공원은 캐네디언 로키의 국립공원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재스퍼 타운(Town of Jasper)을 조금만 나가면 드넓은 호수, 산악 빙하로 덮힌 높은 산, 거친 협곡과 폭포 등 드라마틱한 대자연을 감상할 수 있다. 이곳에서 카누, 승마, 스키 등 사계절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다.

컬럼비아 아이스 필드 파크웨이

Columbia Icefield Parkway

캐나다 로키산맥을 관통하는 총 길이 약 232km의 경관 도로로, 밴프 국립공원과 재스퍼 국립공원을 연결한다. 세계 10대 드라이브 코스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 도로는, 웅장한 빙하, 만년설, 장엄한 산봉우리, 에메랄드빛 호수 등 로키산맥의 가장 상징적이고 드라마틱한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주요 경로이다.



컬럼비아 대빙원과 스카이워크 Columbia Icefield and Skywalk

로키산맥 최대 규모의 빙원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서는 북미에서 가장 많은 방문객이 찾는 애서래스카 빙하(Athabasca Glacier) 위를 탐험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다. 10,000년 된 빙하 위를 특수 제작된 전지형 설상차(Ice Explorer)를 타고 이동하며 웅장한 빙하의 경관과 형성 과정을 가까이에서 관찰하게 된다. 이 클래식 투어 후에는 절벽 상공 280m에 위치한 유리 바닥의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Icefield Skywalk)로 이동하여, 선\Blueprint 밸리 위에서 로키산맥의 숨 막히는 파노라마를 조망하는 짜릿하고 독보적인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스피릿 아일랜드 Spirit Island

잔잔한 멀린 호수(Maligne Lake) 위에 있는 작은 섬으로, 주위에 펼쳐지는 산맥과 호수의 고요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하다. 오직 보트를 타고 접근할 수 있어 신비로움이 더하다. 호수를 가로질러 섬으로 가는 동안 웅장한 산맥과 청량한 호수의 절경을 감상하고, 섬에 도착하면 짧은 트레일을 고요히 따라 걸으며 작은 섬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다. 해 질 무렵 풍경도 아름답다.

📍 Improvement District No. 12, AB T0E 0A8

재스퍼 스카이트램 Jasper SkyTram

최대 26명까지 탈 수 있으며, 정상까지는 7분 30초 걸린다. 정상에서는 재스퍼 타운을 비롯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Icefield Parkway), 피라미스 호수(Pyramid Lake), 패트리샤 호수(Patricia Lake) 등 재스퍼의 명소들이 내려다보이며, 날씨가 좋으면 로키에서 제일 높은 루슨 산(Mt. Robson)도 볼 수 있다. 📍 Jasper, AB T0E 1E0



애서래스카 폭포 Athabasca Falls

캐네디언 로키에서 가장 역동적인 기세를 자랑하는 애서래스카 폭포는 24m 높이에서 쏟아지는 압도적인 수량과 바위를 뚫고 지나가는 거친 물살로 로키의 야성미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다. 재스퍼 타운에서 남쪽으로 30km 떨어진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바로 옆에 위치해 접근성이 뛰어나며, 강력한 빙하수가 석회암을 깨어 만든 신비로운 협곡과 포트홀 지형이 감동적인 장관을 선사한다. 이곳에서 로키의 웅장함을 만끽한 뒤, 차로 20분 거리에 있는 선(Blueprint) 폭포까지 함께 둘러본다면 완벽한 재스퍼 여행 코스가 될 것이다.

알버타 주의 주도인 에드먼튼은 캘거리에 이어 캐나다에서 5번째로 큰 인구 규모의 도시다. 쾌적한 날씨를 보이는 여름과 가을에 많은 여행자들이 이 도시를 찾는다. 풍부한 일조량 덕분인지 캐나다에서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대표 지구로 알려져 있고, 도시 전체가 활기 넘친다. 에드먼튼의 따사로운 햇살을 즐기면서 이 도시의 매력에 흠뻑 빠져보자.

웨스트 에드먼튼 몰 West Edmonton Mall

웨스트 에드먼튼 몰(WEM)은 북미 최대 규모의 쇼핑 및 실내 엔터테인먼트 복합 공간으로, 800개 이상의 상점과 100개 이상의 식당을 갖추고 있다. 이곳은 월드 워터파크(World Waterpark), 갤럭시랜드(Galaxyland) 놀이공원, 마린 라이프(Marine Life) 수족관, NHL 규격의 아이스 링크, 미니 골프장, 카지노, 영화관 등 다양한 오락 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유로파 대로(Europa Boulevard)'와 같은 테마 구역과 테마 객실을 갖춘 판타지랜드 호텔(Fantasyland Hotel)을 통해 숙박까지 해결할 수 있어 매년 수백만 명의 방문객을 끌어모으는 에드먼튼 최고의 관광 명소이다.



메티스 크로싱 Métis Crossing

에드먼튼 북동쪽 스모키 레이크 인근에 위치한 캐나다 알버타 주 최초의 메티스 문화 체험 및 교육 센터이다. 캐나다 주요 선주민 그룹인 메티스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보존하고 알리기 위해 조성되었으며, 특히 밤 하늘의 별을 보는 둠 숙소나 화이트 바이슨(들소) 관찰 같은 특별한 체험이 결합된 '복합 문화 관광지'라는 점이 큰 특징이다.

알버타 미술관 Art Gallery of Alberta

에드먼튼 최대의 미술관으로 꼽힌다. 사실 소장된 현대미술 작품의 규모를 말하기 이전에 이목을 끄는 매우 독특한 건축으로 유명하다. 곡면과 평면이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연결된 외관은 멀리서도 지나가는 이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하다. 시기가 맞는다면 기획 전시를 관람하는 것도 좋고, 기념품 가게와 미술관 카페를 이용하면서 건축 내부를 감상하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는 것도 좋은 경험 될 것이다.

2 Sir Winston Churchill Sq, Edmonton, AB T5J 2C1
11:00~17:00(수·금·토·일요일), 11:00~19:00(목요일), 월·화 휴무



알버타 주의회 청사 Alberta Legislature Building

에드먼튼 다운타운 남쪽에는 알버타 정부 청사가 자리한다. 고전적 양식으로 지어진 웅장한 분위기의 건축물 덕에 많은 여행자가 들르는 곳이다. 지역 주민들도 여름철에는 가족, 연인 단위로 이곳에서 산책을 즐긴다. 여유를 낼 수 있다면, 청사 공원과 맞닿은 노스 사스카추완 강(North Saskatchewan River)을 따라 드넓게 이어지는 공원들을 산책해보는 것도 좋겠다. 10800 97 Ave NW, Edmonton, AB T5K 2B6

로저스 플레이스 Rogers Place

에드먼튼의 하키팀인 에드먼튼 오일러스(Edmonton Oilers)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하키팀들의 단 하나의 목표인 스탠리 컵(Stanley Cup)을 다섯 번이나 들어 올린 최강자다. 로저스 플레이스는 2016년 개장한 오일러스의 홈구장. 새로 지은 경기장답게 최신식 시설을 갖췄다. 시내 중심부에 있어, 하키 시즌이면 열광적인 팬들이 경기장에 모이니, 이 시기에 방문한다면 에드먼튼 사람들이 얼마나 오일러스를 사랑하는지 확인해볼 수 있을 것!



캐네디언 배드랜즈(Canadian Badlands)는 알버타 주 남동부에 걸쳐 있는 독특한 침식 지형으로, 수천만 년에 걸친 풍화 작용으로 인해 깊은 협곡과 붉은색, 회색 등 다양한 지층이 노출된 기이하고 광활한 경관이 특징이다. 이 지역은 특히 백악기 후기 공룡 화석이 세계적으로 풍부하게 발견되는 곳으로 유명하며, 드럼헬러(Drumheller)와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룡 주립공원(Dinosaur Provincial Park)이 주요 거점이다. 방문객들은 홀스슈 캐년(Horseshoe Canyon)과 같은 협곡에서 후두스(Hoodoos) 같은 기암괴석을 관찰하며 지구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다.



홀스슈캐년 Horseshoe Canyon

캐나다 로키산맥 동쪽에 펼쳐진 배들랜즈(Badlands, 악지) 지형을 대표하는 명소 중 하나이며, 공룡 화석으로 유명한 드럼헬러(Drumheller)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 이 협곡은 이름 그대로 말굽 모양으로 굽어진 독특한 형태로 유명해졌다. 빙하의 침식 작용으로 형성된 지질학적 특성을 보여주며,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는 장엄하고 독특한 경관으로 많은 방문객을 끌어들이고 있다.



쉬어가기

평범함을 거부하는 이색적인 골프 경험을 원한다면, 캐네디언 배드랜즈(Canadian Badlands)의 독특하고 극적인 지형을 활용한 18홀 코스에 주목해야 한다. 지구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짜릿한 라운딩 경험을 만끽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곳이다. 드럼헬러의 다이노소어 트레일 골프 & 컨트리 클럽(Dinosaur Trail Golf & Country Club) ☎ 6455 N Dinosaur Trail, Drumheller, AB T0J 0Y0



드럼헬러와 로얄 티렐 박물관 Drumheller and the Royal Tyrrell Museum

캘거리에서 북동쪽으로 약 1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한다. '세계 공룡 수도'로 불리는 드럼헬러(Drumheller)의 핵심 명소는 바로 로얄 티렐 박물관(Royal Tyrrell Museum)이다. 이 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을 전시하며, 기네스북에 등재된 공룡 뼈와 알버타 주에서 발견된 '알베르토사우루스(Albertosaurus)'도 만날 수 있다. 특히 5~13세 어린이 대상으로는 실제 화석 옆에서 하룻밤을 보내는 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공룡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한다. 박물관은 드럼헬러 도심에서 무척 가까워 이동이 편리하다.

▣ 1500 N Dinosaur Trail, Drumheller, AB
TOJ 0Y0 ☎ 10:00~17:00, 월요일 휴무
tyrrellmuseum.com 박물관 하룻밤 캠프
☒ tyrrellmuseum.com/whats_on/
activities/camp-in



공룡 주립 공원 Dinosaur Provincial Park

드럼헬러에서 남동쪽으로 약 두 시간 거리에 위치하며,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이다. 지금까지 42종 이상의 공룡이 발굴되었으며, 이는 전 세계 화석의 5%에 달하는 경이로운 규모이다. 이곳에서는 가이드와 함께 실제 화석 발굴 체험을 해볼 수 있으며, 황무지에 그대로 드러난 협곡과 산성성이, 그리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후두스(Hoodoos)라 불리는 버섯 모양의 기이한 암석 지형을 탐험하며 백악기 시대의 흔적을 생생하게 느낄 수도 있다. 방문자 센터(09:00~19:30 운영)에서는 하이킹 코스, 캠핑, 발굴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알버타 주는 장엄한 산맥부터 고대 공룡의 흔적을 간직한 황무지까지, 지구의 역사와 생명력이 응축된 독보적인 자연 및 문화 경관을 자랑한다. 지질학적, 생태학적, 그리고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총 6곳이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은 세계자연유산, 세계문화유산, 세계복합유산 형태로 인류가 보호해야 할 최고의 가치를 품고 있다. 이 유산들은 캐나다 로키산맥의 웅장한 빙하 지형부터 북미 평원 원주민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유적까지, 알버타가 지닌 다양하고 경이로운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1 캐나다 로키 산맥 공원 Canadian Rocky Mountain Parks

브리티시 컬럼비아(BC) 주와 공유하는 광대한 지역으로, 밴프, 채스퍼, 쿠트니, 요호 등 4개 국립공원과 3개 주립공원을 포함한다. 만년설, 거대한 빙하, 장엄한 산봉우리, 그리고 레이크 루이스(Lake Louise)와 같은 빼어난 호수 경관이 어우러진 놀라운 산악 경관을 자랑하며, 야생동물 서식지이자 지구의 지질학적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자연유산이다. (참고 P.8-13)

2 공룡 주립 공원 Dinosaur Provincial Park

알버타의 황량한 배드랜즈(Badlands) 지형에 위치한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공룡 화석 산지다. 백악기 시대의 화석이 풍부하게 발견되며, 현재까지 75종 이상의 공룡이 발굴되었다. 이 독특하고 기이한 지형은 로키산맥과는 다른 자연 경관을 선사하며, 고생물학 연구에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공룡 화석 발굴지이다.

(참고 P.16-17)



3 우드 버팔로 국립공원 Wood Buffalo National Park

캐나다 최대 규모의 국립공원이자 세계 최대의 목초지 생태계를 자랑한다. 이곳은 멸종 위기종인 야생 들소(Wood Bison)와 힌두루미의 유일한 자연 서식지이며, 생물학적 다양성이 높은 평화-애서바스카 삼각주(Peace-Athabasca Delta)를 포함하기도 한다. 들소, 늑대, 비버 등 야생동물 관찰이 가능하며, 오로라 관측 명소로도 알려져 있다.

4 워터튼-글레이셔 국제 평화 공원 Waterton-Glacier International Peace Park

알버타의 워터튼 레이크 국립공원과 미국 몽태나주의 글레이셔 국립공원이 연계되어 지정된 세계 최초의 국제 평화 공원이다. 이곳은 뛰어난 고산 생태계를 공유하며, 식물과 포유류의 다양성 보전 및 국제 협력의 상징일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5 헤드-스매시드-인 버팔로 점프 Head-Smashed-In Buffalo Jump

6,000년 넘게 북미 평원 선주민이 사용해 온 전통 사냥터이다. 들소를 절벽 아래로 몰아 잡던 고대 방식과 기술이 고스란히 보존되어 있어, 북미 선주민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가치를 지닌 대표적인 유적지이다.

6 라이팅-온-스톤 주립공원 Writing-on-Stone Provincial Park

가장 최근 2019년에 등재된 유산으로, 블랙풋(Blackfoot) 선주민의 임각화와 벽화 컬렉션이 북미 평원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밀집된 곳이다.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 외에도, 모래바위 지대에 형성된 후두스(Hoodoos)라 불리는 기이한 암석 기둥이 독특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제공한다.



로키산맥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긴 산맥이다. 캐나다와 미국에 걸쳐있으며, 봉우리의 높이보다도 드넓은 규모가 유일무이한 산맥이다. 무려 4개의 국립공원과 3개의 주립공원이 캐네디언 로키에 속한다. 넓게 뻗은 로키 산맥을 여행하는 방법으로 기차 타고는 더 좋은 방법을 떠올리기 어렵다.



로키 마운틴너 Rocky Mountaineer

로키를 기차로 달리는 대표적인 투어 프로그램으로, 주간 이동과 야간 숙박이 결합된 프리미엄 코스를 제공한다. 기차 안에서는 총 4박 풍경을 보며 이에 맞는 적절한 관광 설명을 듣고, 천혜의 자연을 배경으로 식사를 즐길 수 있다. 각 도착지에서는 에드먼튼이나 캘거리로 연계 투어와 숙박이 포함된다. 밴쿠버(Vancouver), 캘리포니아(Kamloops), 재스퍼, 밴프 등을 타린다.

www.rockymountaineer.com



비아 레일 캐나다 VIA Rail Canada

밴쿠버에서 토론토까지 가는 캐나다 대륙횡단 철도다. 전체 노선 중 밴쿠버-재스퍼 구간이 가장 유명한 노선으로 꼽힌다. 알버타 주 내에서만 본다면 재스퍼-에드먼튼(양방향) 구간도 예약 가능하다. 비아레일은 캐나다에서 최초로 일등석 서비스를 제공한 열차로, 프리미엄 열차 투어의 상징과도 같다. www.viarail.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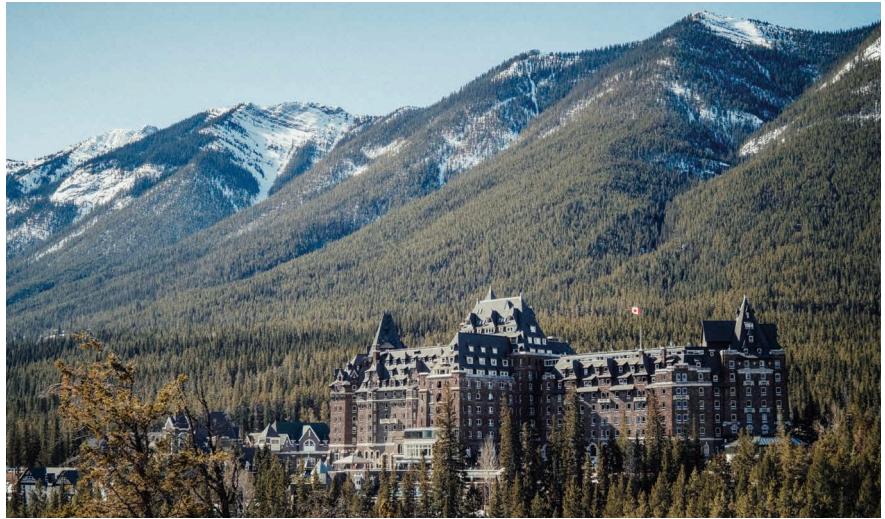
밴쿠버 – 재스퍼 구간 Vancouver to Jasper 밴쿠버 – 재스퍼 구간은 오후 3시에 밴쿠버 피시피 스테이션에서 출발한다. 기차는 19시간을 달려서 다음날 오전 11시에 재스퍼에 도착한다. 기차 안에서의 저녁 식사는 체크인 때 배정받은 순서대로, 다음 날 아침 식사는 선착순이다. 이동하는 동안 로키산맥의 아름다운 전경을 감상할 수 있다.



슬리퍼 플러스 클래스 Sleeper Plus Class

아늑한 침대가 마련된 1인용, 2인용 또는 3인용 객실을 운영한다. 다이닝 칸에서는 지역 특산품으로 갓 조리한 식사와 캐나다 와인을 즐기며 키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페어몬트 밴프
스프링스 호텔**
**Fairmont Banff
Springs**

1888년 문을 연 이 호텔은 '로키산맥의 성'이라 불리는 럭셔리 호텔로 우뚝 솟은 지붕과 돌담이 우아한 자태는 전 세계 여행자들이 찾는 명소 이자, 사계절 내내 밴프를 여행하기에 완벽한 베이스캠프가 되어준다. 프라이빗 다이닝 뿐만 아니라 오후에 즐기는 애프터눈 티와 저녁에 렌들바에서 즐기는 수제 카테일도 모두 최고 수준이다.

📍 405 Spray Ave. Banff, AB T1L 1J4. 🌐 www.Fairmont.com/banff



페어몬트 재스퍼 파크 룸지
Fairmont Jasper Park Lodge

캐나다인 로키에서 가장 큰 국립공원인 재스퍼 국립공원 내 보베르 호수(Lac Beauvert)에 자리한다. 700에이커 규모의 럭셔리 리조트형 호텔로 자연 속 캐빈 스타일의 독립형 숙소가 매력적이다.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소나무 숲, 맑고 투명한 보베르 호수 사이에 위치해 숙박하는 자연 풍경을 자랑하고, 숲과 호수에 둘러싸여 엘크와 사슴도 자주 보인다. 로키 최고의 골프코스와 함께 카누, 하이킹 등 야외활동을 즐기기에도 최적이다. 🌐 1 Old Lodge Rd, Jasper, AB T0E 1E0

🌐 www.fairmont.com/jasper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 Fairmont Chateau Lake Louise

어쩌면 레이크 루이스보다 더 유명한 이 호텔에 묵기 위해서는 1년 전부터 예약을 서둘러야 할 정도다. 1890년 작은 통나무집에서 시작해 1900년대 초중반 현재의 웅장한 모습을 갖춘 5성급 호텔이다. 고풍스러운 분위기로 늘 인기가 높으며, 호텔 내 레스토랑은 대부분 '리조트 캐주얼' 드레스 코드를 권장한다. 투숙객이 아닌 경우 예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으니 방문 전 확인은 필수. 🌐 111 Lake Louise Dr, Lake Louise, AB T0L 1E0 🌐 www.fairmont.com



프린스 오브 웨일즈 호텔 Prince of Wales Hotel

워터턴 호수가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은 곳에 자리해 랜드마크가 된 호텔. 건물 양식 역시 매력적이다. 1927년부터 운영되었다. 호텔에서 바라보는 워터턴 호수와 산맥의 풍경이 매우 아름다워 늘 인기 많은 방문지다. 워터턴 국립공원 여행의 거의 필수 코스인 베어스 험프트레일과도 10분 거리로 가깝다. 호수 전망이 보이는 곳에서 즐기는 애프터눈티는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 가능하며, 페어몬트 샤토 레이크 루이스보다는 훨씬 저렴하다고.

📍 AB-5, Waterton Park, AB T0K 2M0 🌐 www.glacierparkcollection.com

알버타 주는 너른 들판에서 자란 소, 엘크, 카리부와 청정 농지에서 길러낸 콩, 밀, 보리 등 풍부하고 신선한 식재료의 산지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우수한 식재료를 기반으로 한 세프들의 도전 정신과 창의력이 돋보이는 이곳만의 독특한 미식을 경험해 보길 추천한다. 특히, 알버타 소고기는 뛰어난 육질과 풍미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특산품이므로, 알버타를 방문한다면 소고기 요리를 반드시 맛보길 강력 추천!



빅 락 브루어리 Big Rock Brewery

이곳을 세운 이는 1984년 은퇴를 앞둔 60세 나이의 에드 맥널리였다. 그는 인기 있는 맥주가 아니라 자신이 마시고 싶은 맥주를 만들겠다고 결심했고, 그렇게 만든 맥주는 아주 많은 사랑을 받았다. 지역색 가득한 맥주는 캘거리의 또 다른 추억이 될 것이다.

📍 5555 76 Ave SE, Calgary, AB T2C 4L8 ☎ 11:00~22:00



골드 가든 베버리지 컴퍼니 Gold Garden Beverage Company

아무나 편하게 들러서 맛있는 맥주를 즐길 수 있도록 고안된 공간이다.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을 위해 무알코올 음료, 채식주의를 배려한 메뉴와 글루텐 프리 옵션까지 갖췄다.

📍 1100 11 St SE, Calgary, AB T2G 3G1 ☎ 11:00~24:00(일~목요일), 11:00~익일 1:00(금·토요일)

루스티카 앤 실버팁 리조트 Rustica at Silvertip Resort

산속 렉서리 산장에서 최고급 요리의 향연이 펼쳐진다. 창밖으로는 사계절 맑고 청량한 자연뿐이고, 레스토랑 내부는 아늑한 산장처럼 담백하게 생겼다. 선보이는 요리들 역시 하나하나 수준급이다. 스테이크 등 쇠고기 요리는 물론 해산물과 계절 채소를 활용한 채식 메뉴도 유명하다.

📍 2000 Silvertip Trail, Canmore, AB T1W 3J4
🕒 17:00~21:00, 월·화요일 휴무 ☎ silvertipresort.com



샤커트 Charcut

'탑 셰프 캐나다(Top Chef Canada)'의 결승 진출자 코니 드수사 (Connie DeSousa)가 운영하는 캘거리의 대표적인 미식 명소이다. 메뉴는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전통에서 영감을 받아, 제철 식재료와 장인정신이 담긴 신선하고 책임 있게 조달한 재료들로 구성된다. Back to Basics, Back to Flavour라는 철학 아래 기본에 충실하면서 본연의 맛을 살려낸다. 📍 2899 Centre St S, Calgary, AB T2G 1B8 / Charcu ☎ www.charcu.com



아이언 고트 펍 앤 그릴 Iron Goat Pub and Grill

광활한 로키 산맥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목재 레스토랑에서 먹는 캐주얼한 식사라니!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까지 손에 잡힐 듯 맑게 보이는 통창으로 된 다이닝룸에서 점심을 먹으며, 자연과 문명의 즐거움을 동시에 즐겨보길. 📍 703 Benchlands Trail, Canmore, AB T1W 3G9 ☎ 12:00~21:00 (월~목요일), 11:00~21:00(금~일요일)
☞ www.irongoat.ca



척스 스테이크하우스 Chuck's Steakhouse

아마도 밴프에서 스테이크로는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일 척스는 최고 품질의 알버타산 소고기를 독점적으로 확보해 사용한다. 다이닝룸에 난 창밖에는 시원한 숲과 산맥의 전경이 펼쳐진다. 목가적인 분위기에서 최고의 스테이크를 경험하고 싶다면 추천한다.

📍 101 Banff Ave, Banff, AB T1L 1C1 ☎ 17:00~21:00(월~목요일), 16:30~21:00(금~일요일)
☞ www.chuckssteakhouse.ca

더 하비스트 룸 앤 테라스 The Harvest Room & Terrace

에드먼턴의 페어몬트 호텔 맥도널드(Fairmont Hotel Macdonald) 내에 자리한 레스토랑으로,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에서 노스 사스카추완 강(North Saskatchewan River)의 멋진 전망을 즐길 수 있는 곳이다. 레스토랑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허브 정원에서 엄선한 신선한 재료로 요리를 만든다. 엄선된 와인 리스트도 특징으로 꼽히며, 수준급 요리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다.

📍 10065 100 St NW, Edmonton, AB T5J 0N6 ☎ 07:00~11:00, 17:00~20:30(월~금요일, 주말 12:00~16:30 추가 운영)
☞ www.fairmont.com



더 뷰 The View

멀린 호수(Maligne Lake)와 이를 둘러싼 산맥의 숨 막히게 아름다운 절경을 바라보는 다이닝으로 유명하다. 지역에서 조달한 다양한 현지 육류, 농산물 등을 엄선하여 고급 메뉴를 선보이는 데, 레스토랑 자체는 자연 친화적이고 캐주얼한 분위기를 연출하므로 어렵고 부담스러운 분위기는 아니다. 편안한 식사와 함께 호수의 아름다움까지 즐기고 싶다면 이곳으로! 📍 Maligne Lake Rd, Jasper, AB T0E 1E0 ☎ www.banffjaspercollection.com

쓰리 베어스 브루어리 앤 레스토랑 Three Bears Brewery & Restaurant

숲속의 브루어리. 오픈 테이블이 선정한 캐나다 TOP 100 레스토랑 중 하나다. 별을 감상할 수 있는 개폐식 지붕과 비어 가든을 갖춘 수제 맥주 양조장으로 이곳에서 직접 만드는 맥주와 잘 어울리도록 세프가 영감을 받아 만든 맛있는 메뉴를 제공한다. 가족, 친구, 단체 모두가 즐기기 좋은 캐주얼하고 활기찬 공간이다. 밴프의 특별한 에너지가 제대로 느껴질 것이다. 📍 205 Bear St, Banff, AB T1L 1A1 ☎ threebears.com




팁 문화 기억하기

캐나다는 일반적으로 택시, 레스토랑 기준 약 20% 전후를 팁으로 지불한다. 단 패스트푸드점, 카페테리아, 푸드코트 등 셀프 서비스가 주된 곳에서는 당연히 팁을 주지 않는다. 현금으로 지불해도 되고, 카드 결제 시에는 팁 금액을 입력하거나 적는 경우도 있다. 호텔에서는 C\$1~2 정도 침대에 두고 나오는 것이 예의다.


아이스하키 관람하기

캐나다 내에서 국민 스포츠인 아이스하키의 위상은 절대적이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이어오는 내셔널 하키 리그(NHL)는 30여 개의 팀이 참가하고, 그중 캐나다는 7팀이다. 경기를 관람하고 싶다면 미리 한국에서 온라인으로 예매하는 것이 좋으며 구단 홈페이지, NHL 홈페이지, 온라인 티켓 예매 사이트에서 구입할 수 있다.


야생동물 관찰하기

야생동물을 무조건 만날 수 있다고 보장하기 어렵지만, 가장 이상적인 시기는 동물들이 잘 활동하는 5월에서 10월까지다. 캐나다 가이드들은 대부분 야생동물이 자주 출몰하는 일부 지역과 안전하게 관찰하는 법을 설명해 주며, 곳곳에 안내판이나 리플렛 등에도 안전수칙이 적혀 있으니 이를 잘 참고하자. 지방도로에서는 야생동물이 출몰할 수 있으므로, 제한 속도가 낮은 구간의 표지판을 잘 확인하고 속도를 준수해야 한다.


알버타 교통편

대중교통 이용시 교통카드나 1회용 티켓, 그리고 현금승차도 가능하다. 단, 거스름돈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으로 준비해야 한다.

• 공항 셔틀서비스

캘거리 공항에서는 시내를 비롯 밴프, 레이크루이스로, 에드먼튼에서는 재스퍼로 가는 셔틀이 있다.

• Banff Airporter www.banffairporter.com

캘거리 공항 - 캔모어 - 밴프, 밴프 도어투도어 서비스, 성인 편도 \$59

• Brewster Airport Express 캘거리 공항-캔모어 - 밴프 - 레이크루이스 - 재스퍼 운행, 대형버스, 와이파이 제공, 성인 편도 \$67(하계 5월~10월/동계 11월~4월 일정 다름)
• Sundog Tours www.sundogtours.com/transportations 캘거리 - 밴프 - 레이크루이스 - 재스퍼, 와이파이 제공, 재스퍼 - 캘거리(성인 편도 \$169) 또는 재스퍼-밴프(성인 편도 \$84) 구간만도 탑승 가능
• Sundog Tours www.sundogtours.com/transportations

에드먼튼 공항 - 시내- 힌튼 - 재스퍼, 와이파이 제공, 성인 편도 \$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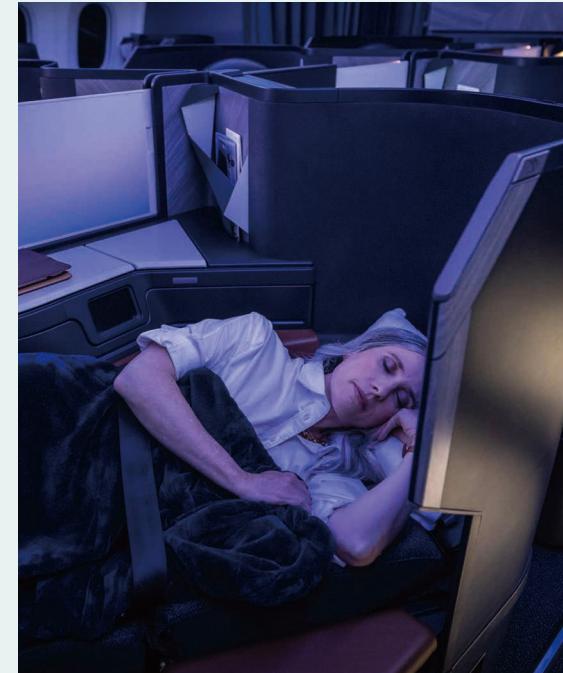
드라이브 코스 즐기기

캐나다는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할 수 있는 드라이브 코스가 많다. 알버타를 대표하는 드라이브 코스는 아이스필드 파크웨이(Icefield Parkway)와 보우 밸리 파크웨이(Bow Valley Parkway)다.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는 밴프와 재스퍼를 이어주는 도로로, 해발 3,000m가 넘는 산들의 만년설을 감상할 수 있다. 보우 밸리 파크웨이는 조금 둘 아가야 하는 길이지만, 오랜 멎고 운치가 있다.



“캘거리 직항, 오직 웨스트젯”

웨스트젯(WestJet)은 캘거리 중심으로 캐나다 전역과 미국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대표 항공사입니다. 보잉 787-9 드림라이너로 운항하는 인천-캘거리 직항 노선을 통해 더 여유롭고 편안한 장거리 여행 경험을 선사합니다. 또한, 웨스트젯 리워드(WestJet Rewards) 프로그램을 통해 항공권·호텔·렌터카 등 다양한 제휴 서비스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캘거리 경유, 편리한 연결
인천 출발 승객은 캘거리로 경유하여 다음 지역으로
편리하게 연결됩니다

- 밴프, 재스퍼 및 캐나다 로키 산맥 (캘거리에서 차량으로 쉽게 이동)
- 캐나다 내 타 목적지 (국내선으로 신속 연결)
- 미국 주요 도시 (원활한 항공 연결)

웨스트젯 직항 노선 일정

• 운항일 2026년 3월 29일 ~ 11월 9일

• 운항횟수 주 최대 6회

• 항공편 정보

WS087 인천 20:45 - 캘거리 16:10

WS086 캘거리 15:50 - 인천 18:45+1

웨스트젯 프리미엄 서비스
드림라이너 비즈니스 캐abin

- 전 좌석 완전 평면(Flat-bed)
- 독립형 프라이버시 구조
- 캐나다식 코스 기내식 & 프리미엄 음료
- 대형 개인 모니터 및 어메니티 키트

드림라이너 프리미엄 캐abin

- 2-3-2 배열의 넓은 좌석
- 업그레이드된 레그룸 & 리클라이닝
- 프리미엄 캐나다식 기내식
- USB/AC 전원 및 대형 엔터테인먼트